

한국가톨릭의료협회

2011년 원목자 연수



본 협회(협회장 이동의 신부) 원목분과 위원회(위원장 이재철 신부)에서는 6월 2일에서 3일까지 1박 2일로 대전 대청 청소년회관에서 전국의 원목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목자 연수를 개최하였다.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양수 교수의 '환자와의 의사소통기술'과 대전성모병원장 박재만 신부의 '가톨릭교회 병원의 이념, 사명 그리고 영성'의 강의 및 원목 생활의 나눔이 있었다.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가톨릭병원의 이념(하느님 사랑)과 영성 강의를 통해 신앙인으로써의 정체성과 중요성을 잘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병원에서 원목자의 역할이 무엇이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을 알 수 있었다.

백내장 수술 장비 기증식



6월 8일 새빛안과병원(원장 박규홍)에서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이하 협회) 몽골의

료지원을 위해 기증한 백내장 수술 장비 (수정체유화술 기계) 기증식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6층 협회장 신부 집 무실에서 진행되었다.

기증받은 백내장 수술 장비는 6월 하순 해운으로 몽골 다르항 제1병원으로 전달되고 본 협회 2차 해외의료봉사(9. 3~10) 때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그 동안 백내장 수술 장비를 대여하여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협회는 새빛안과병원의 장비 기증으로 더 많은 몽골 다르항 주민들에게 수술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협회는 몽골 제2의 도시이지만 경제, 보건의료,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다르항 구 시가지 지역에서 2008년부터 주민무료진료 및 수술, 다르항 제1병원 지원, 학교보건사업, 의수족 지원 사업 등 의료지원을 지속해 왔다. 특히 2009년 안과 전문 진료와 수술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백내장 42건, 익상편 16건, 피질제거술 4건, 사시수술 25건 지원을 시행하였다.

2011년 임상사목세미나 개최



한국가톨릭의료협회가 주최하고 본 협회 원목분과위원회와 CMC 임상사목연구소가 공동주관한 2011년 임상사목세미나가 7월 7일 서울성모병원 별관 2층 임상강의실에서 '우울증,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전국에서 원목·사목자 및 자원봉사자(CPE 1Unit 이상 수료자) 80여 명이 참

석했으며, 제1주제는 서울성모병원 정신과 채정호 교수의 '우울증의 전인적 접근, 어떻게 할 것인가?', 제2주제는 가톨릭임상사목연구소 이진 책임연구원의 '사목자의 역할, 희망을 돌려주는 것!', 제3주제는 성빈센트병원 CPE센터장 정무근 신부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경희 간호사의 '우울증 환자를 위한 영적 돌봄 사례 분석'이 패널식으로 진행되었다.

채 교수는 "우울증에 걸리면 뇌의 감성적인 부분이 강해지는 반면 이성적 부분은 약화돼 지나치게 감성적이게 된다"고 했으며, "우울증은 감정적인 기분에 함몰되며 빠지는 증상을 나타내므로 치료하지 않으면 해마 위축이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인간이 서로 격리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나친 완벽주의는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진 책임연구원은 "영성 생활은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는 하느님과 지속적인 공감 상태에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묵상을 통한 감정 통찰방법은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어 의학적으로도 응용되는 치료 방법"이라며 "자신에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묵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해마다 개최되는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세계대회 주제로 국내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우울증이 치료 및 병의 완화에 영감을 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여 채택하게 되었다.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자살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 내 사목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우울증 관련 정보와 우울증 환자들을 위한 영적 돌봄 사례 등을 소개하고 실 사례를 통한 우울증 상담 방법도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2011년 2차 일본 성마리아병원 간호사그룹 연수



본 협회는 간호사그룹의 연수를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성마리아병원으로 파견 한다. 연수를 진행하기에 앞서, 6월 23일 1차 오리엔테이션에서 일본어 테스트 및 연수설명회를 가졌고, 7월 21일 2차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연수의 목적과 일정, 연수진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설명 및 전국에서 모집된 연수생들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총 38개 회원병원 중, 7개 병원 소속 간호사가 이번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모집된 연수생들의 연수 희망분야를 바탕으로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욱이 나가사키와 고토 지역의 성지순례와 고토 성마리아병원을 함께 견학하며, 일본 내 가톨릭이념의 표현방식이 한국과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양국 간호사의 직무 차이를 경험해 봄으로써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몽골 의사 연수 - CMC 선진 의학 배우러 왔어요

몽골 의료진들이 한국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초청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았다. 몽골 다르항 제1병원 마취과 몽흐바트 반디(Munkhbat Bandi, 31세)는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몽흐바트 반디는 “서울성모병원에서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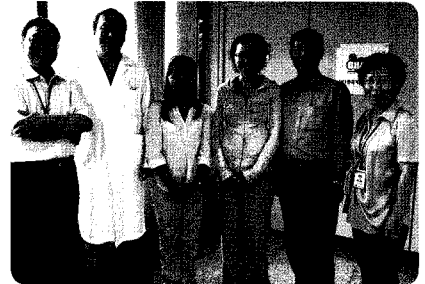
대의학의 여러 가지 정보와 의학의 발전을 접할 수 있었다”며 “몽골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며, 다른 의사 선생님에게도 가르쳐줄 생각”이라고 전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에서 연수 중인 몽골 다르항 제1병원 외과의사 앙흐바타르 담비잔츨(Enkhbaatar Dambijantsan, 43세)은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애쓰고 환우를 가족과 같이 아끼고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에 감탄했다”며 “몽골에 돌아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2008년부터 경제, 보건의료, 교육 환경이 열악한 몽골 다르항 지역에서 무료진료 및 수술, 다르항 제1병원 지원, 학교보건사업, 의수족 지원 사업, 의료진 초청 연수, 환자 초청진료 등 의료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 형편이 어려운 몽골 환자 초청 수술 및 무료진료

텔게르마 Delgermaa Khishigdelger(여, 39)는 3년 전부터 소화가 잘 안되고, 식후에는 목에서 끄르 끄르 소리가 나, 일을 할 수가 없어, 몽골의 개인 병원을 거



쳐, 지난 5월 28일 송도 병원에서 각종 검사 결과, 위암 초기로 나왔다. 고등학교 다니는 딸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남편은 무직으로 생계를 책임졌던 환자는 가정형편이 많이 어려워 집이라도 팔아서 수술을 받겠다고 했으나 이를 본 몽골 선교사로 계시는 이호열 신부와 미셀 수녀의 주선으로 본 협회와 연결이 되었다.

미리 보내온 그곳의 검사결과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과 박조현 교수와 상의 후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여 초청하였으며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지난 7월 30일 새벽 간병을 위해 동생 데지드마 Dejidmaa Khishigdelger(여, 37)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텔게르마는 8월 2일 서울성모병원 사회사업과를 통해 17층에 입원하여 내시경 및 수술 전 검사를 받고 8월 8일 위 절제술 후 17일 퇴원하였다.

수술은 잘되었으며 산부인과와 신장내과 진료도 보았고, 24일 설발 제거를 한 후 8월 26일 몽골로 돌아갈 예정이다. 환자인 텔게르마와 동생 데지드마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워했고, “새 생명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했다.

## 한국가톨릭약사회

### 성지 순례 및 피정

한국가톨릭약사회(회장 이강추 토마스 모어)는 5월 29일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한티 성지에서 전국 가톨릭약사 회원 성지 순례 및 1일 피정이 있었다. 서울교구 51명, 청주교구 21명, 대전교구 4명, 대구교구 6명 등 총 82명이 참가한 피정에서는 대구대교구 전광진 신부의 '평신도사도직과 구원'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약사들이 주님 은총을 마음에 담고 세상에서 생명사랑을 위하여 봉사하기를 기원하였다. 파견미사에서는 함께 나누는 성체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를 다짐하였으며, 한티 거룩한 성지에서 모처럼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 드렸다.

###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 제2차 간호영성 포럼 개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채계순 수녀)에서는 회원들의 간호영성 강화를 통한 질 높은 영적 간호실현을 위해 제2차 간호영성포럼을 6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별관 2층 임상강의실(구 강남성모병

원)에서 전국의 8개 교구 가톨릭간호사 회원 14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회 학술위원장인 이숙정 교수의 진행으로, 제1강의는 홍성남 신부(서울대교구 가좌동 주임, 가톨릭 1급 영성 심리 상담가)의 "건강한 신앙생활"과 김현남 수녀(서울성가소비녀회)의 한바탕 웃음으로 인도한 "행복여행"과 임병현 신부(서울대교구 서초동 주임)의 "하느님의 자비, 용서와 사랑"의 강의가 이어졌다.

홍성남 신부는 "건강한 삶은 자신의 여러 모습 중에 버리고 싶은 모습마저 데리고 살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나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채우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몸은 상처를 받으면 회복이 빠르지만 마음은 상처를 받으면 회복이 더디다"면서 "내 안에 상처가 많을 때에는 나를 이롭게 하는 이기적 삶을 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톨릭 신자들은 너무 이타적이어서 신경성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을 야단치지 말고 자신과 대화하며 스스로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현남 수녀는 다양한 도구 및 악기(아코디언), 노래, 율동 등을 활용해 행복한 삶으로 가는 여정을 소개했다.

임병현 신부는 "하느님은 우리가 반복적인 잘못을 저질러도 먼저 찾아내 사랑을 전하시는 분"이라며 "나보다 나를 먼저 찾아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앞에 나 자신의 잘못(과거)을 털어버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또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잊은채 기계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다"며 "간호사로서 전문 직업인인 것에 자부심을 갖고 신앙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간호영

성 포럼은 신자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가운데 영적 성숙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착안, 영성을 살찌우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마련됐으며, 앞으로 좀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갖춘 포럼을 매년 1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전국 가톨릭간호대학생 피정 개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는 7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장충동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꿈'이라는 주제로 전국 가톨릭간호대학생 피정을 개최하였다.

전국 9개 교구에서 23명이 참석하였으나 많은 신청에 비해 행사 당일엔 포기한 학생이 너무 많았다.

마리스타 김동렬 수사의 지도로 '여는 마당, 여는 전례'로 시작했으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를 보는 마당'으로 하루를 마감했고 둘째 날 9일엔 새벽미사로 하루를 열었다.

'너와 나의 마당', '나누는 마당', '시간을 걷는 우리 / 축복'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참가한 학생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 살면서 늘 선택을 할 때, 어느 몫을 택했느냐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학생들의 평가>

- 1박 2일이 너무 짧다, 2박 3일이면 좋겠다.(3명)
- 많은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다.
- 피정 참가 전 고민이 많았는데 여기서 다른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나만의 문제가 아



님을 알았다. 깨닫는 것이 많았고, 동료들 만나서 즐거웠다.

- 처음 보는 사람과 춤을 추는 등 좋은 경험을 했다. 열린 생각의 친구를 만나 좋고, 우리는 하느님의 꿈이며,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다.
- 교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와보니 오길 잘했다. 너무 재미있고 뜻 깊었다.
- 안 오려고 했고, 고속버스터미널서도 고민하다가 왔는데, 정말 오길 잘했다. 1학년 때부터 왔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했다.
- 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남을 더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하니까 좋고 남을 배려하게

되는 것 같다. 냉담했었는데 내일부터 미사 참여 해야겠다.(3명)

- 비자발적 참여였으나 가라고 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전국에서 모인 간호학생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고, 따뜻해진 시간이 되었다.
- 학교에서 혼자만 와서 1박 2일을 어떻게 보낼 지 고민 되었는데, 지금은 편하게 쉬다 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같은 전공학생끼리 모이니 이야기 통하는 것이 많아서 좋았다.
- 보통 피정 하면 성서 읽고 묵상하고 느낀 점 이야기 하고 토론하는 형식이라 여기서도 그러리라 예상했는데, 자유로운 분위기라 너무 좋았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아쉽다. 간호과 정보교환도 되었다.
- 학교생활로 지쳐 있었는데, 은혜 받는 시간이었다. 하나의 사건이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
- 피정에 처음 참여하는 데, 내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또한 새 인연을 만난 것도 좋았다.

- 4학년이라 내년에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 불안이 감소되고 힘을 많이 얻어간다.
- 조별 나눔과 여기 온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친구들에게 순수하게 다가갈 수 있음이 신기했다. 앞으로 전국 가톨릭간호대학생 모임 등 종교로 뭉치는 모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 처음 보는 사람과 '꿈' 얘기를 하고 칭찬하는 등 짧지만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 좋은 기회를 얻었다. 3학년이라 심란한 생각이 많았고, 안 좋은 상황에서 여기 오게 된 것이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거라 생각이 되고 좋은 추억이 되었다.
- 1학년인데 선배들의 좋은 얘기 감사하고 좋았다.
- 신발 신을 때까지도 참석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 지 고민했었는데, 너무 재미있었고, 먼저 말 걸어줘서 옛날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들 같았다. 내년에 꼭 참석하겠다.
- 해야 할일이 많았으나 피정을 계기로 나에 대해 많은 정리를 할 수 있었다.

##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톨릭의료협회 vol. 23호 '중독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특집부분 중 'GA 협심자와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윤OO입니다.

협회지를 받아 든 순간 표지의 파란 하늘과 싱그러운 숲은 제 마음에 생동감을 불러 일으켰고, 희망이 머무는 창고이며 쓴 원고가 멋진 책이 되어 왔을 때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도박중독증과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또다시 생겨났습니다.

수원의 어느 분께서 이 글을 읽고 저를 만나고 싶어하셨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그분은, 짧은 시간 동안 만나 대화를 하면서 남편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어떤 전문가의 조언보다 제 경험담이 더 마음에 와 닿았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쓴 글이 다른 이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손주 볼 나이에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누군가를 도와줄 꿈과 희망이 생긴 것이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